

# 여성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이 경험한 사회복지실습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 Difficulties that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Cyber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d in their Social Work Field Practicum and Support Plan

배진형\*, 박미현\*\*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in-Hyung Bae(jbae@bible.ac.kr)\*, Mee-Hyun Park(swpmh@gcu.ac)\*\*

### 요약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 사회복지전공생의 증가와 더불어 필수과목인 사회복지실습에서의 경험 탐색을 통한 적절한 실습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들이 사회복지실습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실습교육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실습을 마친 G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생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개별면접을 실시하고,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의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한 개방코딩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이 경험하는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어려움은 49개의 개념, 18개의 하위범주, 7개의 범주로 최종 분석되었다. 범주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한 실습 진입의 어려움, 북한과의 차이로 인한 혼란, 기대와 다른 과업과 역할 수행, 부담되는 인간관계, 복지적 전문역량 부족감, 불가피한 환경적 어려움, 그리고 개인적 고충상황이었다. 이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실습교육을 위한 지원방안을 학교, 실습기관, 실습생과 사회의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북한이탈주민 | 사이버대학생 | 사회복지실습 | 실습어려움 |

### Abstract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North Korean defectors. Many of them enter universities and major in social welfare in order to get jobs. As a required course, they must participate in field practicum and many difficulties are expect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defectors' practicum experience in specific, and to support more effectively in the field work educ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who go to G cyber university and have finished their field practicums, were interviewed in an in-depth interview.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open coding through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as Grounded theory's initial analysis. As the result, the following was found: 49 concepts, 18 sub-categories, and 7 categories. The categories includ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preparation for and beginning with various obstacles; confusion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culture; tasks and functions that were not expected, personal relationships which were burdensome to them; feeling a lack of professional competence; inevitable environmental circumstances, and personal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s for better support in field practice education in the side of universities, community agencies, individual students and the general society were addressed.

■ keyword : | North Korean Defectors | Cyber University Students | Social Welfare Field Practicum | Difficulties of Field Practicum |

## I. 서론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2만 8천명[1]을 넘어서고 있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최대 관심사는 남한사회 적응이다. 이들은 대학진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대학등록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대학에 진학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중 30대 이상의 여성 성인학습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데, 이들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교[2]를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적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며[3], 취업이 용이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은 남한사회라는 거대한 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대학생으로서의 역할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4]하게 되며, 남북한 교육체계의 차이, 이질화된 언어의 차이, 기초지식 및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5-7] 학습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나이가 많고,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사이버대학생들은 학업수행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3][8]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필수적으로 사회복지실습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학에서 실습은 가장 핵심적인 교육과정으로, 여타의 교과목과는 달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직접 12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들에게 있어 커다란 도전의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 학생들에게 역시 사회복지실습은 가장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육과정이다. 선행연구들[9-12]에 의하면 학생들은 실습에서 지식부족과 자신감 저하, 불안과 긴장, 실습환경,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및 활동 내용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인 사이버대학생들은 실습수행에 있어 오프라인 학생들에 비해 실습지 선정의 어려움, 직장병행과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며, 수행과정에서의 사전 준비나 이해가 미흡하고 실습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실천기술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13][14].

이렇게 사이버대학생이 갖는 사회복지실습수행에서의 어려움에 더하여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들은 북한문화 및 교육체계의 차이, 언어소통 등의 측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생이 갖는 어려움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학생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습지 선정에서부터 전 실습수행과정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유추된다.

사회복지실습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신의 적성을 점검하고, 자아인식 증진과 전문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해주며, 사회복지전문직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지, 장래 직업으로 사회복지사가 적절한지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9]. 나아가, 남한 사회에서 취업의 연결고리 혹은 매개체[11]로써 취업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실습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학문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전공을 살린 진로 결정에 회의를 느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반면 실습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통한 긍정적인 실습경험은 실습생의 동기부여와 노력을 향상시켜 전문성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으며[15], 실습과정에서의 만족과 성과는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16] 되어 실습교육은 사회복지전공생들의 진로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사회 정착이라는 목표 하에 대학진학을 선택하고[17], 사회복지사로 취업할 희망을 품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실습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들이 사회복지실습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실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사회복지실습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사이버대학생들의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연구[13][14][18][19]와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의 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3][8][17]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그 대상을 차별화 하여 북한이탈주민 사

이비대학생의 사회복지실습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회복지실습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실습생의 시각에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차별화된 실습 교육 욕구를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질문은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들이 경험한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이다.

## II. 선행문헌고찰

### 1.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어려움에 관한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학진학을 ‘남한 정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의해 국가에서 무료 혹은 일부 학비가 지원되어 경제적 부담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선택하고 있으며, 특별히 생계를 위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이버대학 북한이탈주민 재학생들이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17]. 이에 따라 이들의 학교생활 경험과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은 남한 교육체계에 적응할 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일반대학의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 대한 이해경[5]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낮은 대학 체계와 내용,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힘들어 했으며, 특히 영어 및 남북한 간의 학습방법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울함과 외로움, 죄책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아·진우택[6]의 연구에서는 북한출신 학생들이 북한과 남한의 교육내용의 차이와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습과 정보습득의 어려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어려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탈북과정에서 겪었던 충격적 사건으로 인해 불안하고 우울한 심리적인 어려움, 학업과 경제활동 병행의 어려움, 미래와 취업에 대한 걱정, 자기만의 정체감 형성의 어려움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미 외[4]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출신 대학생들은 대

학생할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었는데, 특히 대학생할 스트레스 중 ‘학업 스트레스’를, 문화적응스트레스 중 ‘열등감’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사이버학습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김현아[8]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은 남북한 교육문화의 차이, 남북한 언어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으로 남한의 교육체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과업들에 익숙하지 않아 레포트, 토론 등과 같은 교육 및 학습평가방식에 대해 낯설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무지노출에 대해 걱정하는 등의 대인관계 특성을 지녔고,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과 초기 학습적응의 어려움으로 학업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이외에 성인학습자로서 나이로 인한 학습부담, 자녀양육과 직장병행으로 인한 학업부담이 학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숙[3]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은 오랜 분단 기간 동안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 간의 용어, 단어 사용 차이, 영어사용 어려움과 같은 언어의 문제, 북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교육방식과 수업방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2.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선행연구

실습은 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 필수 과목이며 적성에 대한 점검 및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탐색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과정이다[20]. 사회복지전공생들은 학교에서 받은 이론적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직접 클라이언트를 접하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신을 시험하고 검증해나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또 다른 어려움과 스트레스 역시 경험하게 된다[21].

사회복지실습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로, 주영애[10]는 실습환경,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실습생과의 관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실습활동내용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관오리엔테이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과제물을 할 때, 처음에 해야 할 일이 애매모호하고 잘 몰랐을 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실습일지를 기록할 때와 같은 실습활동내용이 다른 요인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혜영[22]은 실습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환경, 역할모델, 업무부담, 전문지식 및 기술, 대인관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문지식과 기술, 업무부담, 교육환경, 역할모델, 대인관계 순으로 실습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수 외[21]의 연구에 의하면, 실습생들은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실습환경, 실습업무부담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준비와 실행, 클라이언트 이해와 의사소통기술 등 개입기술, 기록, 실습생을 위한 공간부족, 학교교육내용의 현장적용 어려움, 돌발 상황에서의 항시 대비, 역할 불분명 및 지나친 과제로 인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질적 연구로 사회복지기관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배진형 외[12]에 의하면, 사회복지실습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실습환경에서의 구조적 도전, 업무나 역할자체에서 오는 부담감, 조화롭지 못한 대인관계,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 관점의 상충, 소진과 진로고민으로 인한 개인적인 버거움이라는 6영역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외 정신보건사회복지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심경순[23]의 질적 연구에서는 수련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팍팍한 수련 일정, 수련생에 대한 배려부족, 수련교육의 비체계성이란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이버대학생들의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어려움에 초점을 둔 체계적인 연구는 없지만, 사이버대학생들의 실습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이루어진 소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이버대학생들이 실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김진숙·구혜영[13]은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상 그 대상이 직장인이나 연령이 높은 성인학습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통적인 의미의 오프라인 대학생들에게 맞추어진 실습교육형태가 사이버대학교 성인학습자에게 현장실습에 대한 부담감과 전문적인 실습과정 수행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학생 측에서는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실습시간과 학기

중의 실습기간,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실습지 선정 등이 어려움을 주고, 기관 측 역시 실습생보다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적은 수퍼바이저가 실습지도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사이버대 실습생을 배제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진진호[14]의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대 실습생들이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사전준비나 이해가 부족하고, 실습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실천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습에 임하는 등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은희[19]는 사이버대학생들이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주말 실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실습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체계적으로 실습을 지도해주는 기관에서 실습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주말 실습을 선택할 경우 수퍼바이저의 휴일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없어 전문성 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외국문헌으로 유학생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Zunz와 Oll[24]의 연구에 의하면, 언어부족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와의 대화 내용 전달 혹은 자신이 하고 있는 과업수행에 대한 성찰에 있어 전달력 부족, 업무 수행 시 쌍방향 대화 내용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명확한 업무 파악 미흡 등이 실습지도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실습생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사전 파악, 실습생에 대해 민감하고 세심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실습지도자와 교수자 측의 사전 준비, 문화 간 차이를 고려하고 실습에 필요한 언어 관련 역량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멘토나 언어훈련 연결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MSW(사회복지석사과정) 프로그램에 실습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학습 지원방안 및 다문화와 국제적 인식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 안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25].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들이 경험한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를 고

찰하여 이를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탐색하고 범주화하여 실질적으로 제시해 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최적의 자료수집 방법은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경험한 사실과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 생각을 고찰하는데 유용한 방법인 심층면접이다[28].

### 1. 연구참여자 선정

심층면접을 위한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연구자가 표본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선정하는 의도적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25]. 연구목적에 위한 자료수집 대상으로 적합한 기준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지난 1년 반 이내 사회복지실습을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이었다. 이를 위하여 G 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6명을 선정하였다. G 사이버대학교에서 2014년과 2015년도에 사회복지실습을 마친 북한이탈주민 학생은 총 13명이었는데, 모두 여성이었고, 이들 중 6명이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에 동의하고 참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참여자	연령	학년	실습기관	실습시기	남한 거주기간
1	42	4	치매노인주간보호소	2014년 4월	8년
2	41	3	노인복지센터	2015년 1월	7년
3	42	4	종합사회복지관	2015년 1월	2년
4	44	4	가정상담센터	2015년 1월	5년
5	36	4	지역아동센터	2014년 7월	7년
6	38	4	노인복지센터	2014년 7월	7년

### 2. 조사 도구 및 자료수집

심층면접에 활용된 조사 도구는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으로,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면접질문

구분	면접 질문 내용
실습에서 경험한 어려움	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습을 시작하고 나서 초기에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습이 진행되면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면접은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되었고, 면접 시간과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사회복지기관, 혹은 자택 등에서 진행되었다. 면접 내용에 대한 질문을 사전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면접에 대한 준비가 편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 당일, 참여자의 윤리적인 권리, 수집된 자료의 처리, 비밀보장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내용에 대하여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참여자의 서명을 받았다. 면접은 3명의 공동연구자가 함께 또는 일대일로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별로 1회씩, 90분에서 최대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 3. 자료 분석

면담내용은 MP3 녹음기로 녹음 후 녹취하여 원자료화 하였다. 녹취된 내용은 Strauss와 Corbin[30]의 근거이론 방법에서의 초기 과정인 개방코딩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근거이론은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 혹은 ‘익숙한 영역이긴 하지만 새롭게 참신한 관점이나 사실을 조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게 활용되는 [29] 질적 연구방법론이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첫째, 점검된 녹취록을 3명의 연구자가 각각 여러 번 읽고, 면접 질문의 범주 내용에 해당하는 실습생이 경험한 어려움의 내용들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참여자가 말한 그대로의 언어를 가급적 유지하면서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3명의 연구자가 3차례의 분석회의를 거쳐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셋째, 3차례의 분석회의를 거쳐 도출된 개념들을 하위범주화 및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주, 하위범주, 개념으로 도출된 분석결과가 내용적으로 중첩되는 영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각각의 범주 및 하위범주들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인용문을 선정하였다. 각 개념들은 코딩과정에서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을[28] 활용하여 도출되었다. 면접 및 분석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3명 연구자의 개별 노트, 메모도 역시 질적 연구의 신뢰 및 타당도 증진을 위해 삼각화(triangulation)하여 분석 과정에 반영하였다.

#### IV.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 실습생들이 경험한 실습에서의 어려움은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한 실습 진입의 어려움, 북한과의 차이로 인한 혼란, 기대와 다른 과업과 역할 수행, 부담되는 인간관계, 복지적 전문역량 부족감, 불가피한 환경적 어려움, 개인적 고충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실습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은 실습 상황에서 어느 한 가지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북한 생활, 탈북과정, 개인적 성향, 주변 가용자원 및 환경 등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이 경험하는 사회복지실습의 어려움

범주	하위범주	개념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한 실습 진입의 어려움	익숙하지 않은 실습 과정 진입에 있어서의 심리적 부담	- 근심되고 막연함 - 시작 전 자신감 부족 - 주변에서 힘들다고 들어 겁남
	실습지 선정에 있어 비우호적 환경	- 좋지 않은 건강상태 - 실습과 병행해야 하는 부담요인 - 사이버학생이라 실습 거부당함 - 북한이탈주민학생이라 실습 거부당함 - 실습을 빨리 마치고 싶은 조급함 - 실습비가 부담됨
	실습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 학교세미나 참석 후에도 내용 이해 못함 - 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 - 실습생으로서의 사전 준비에 필요한 기초 정보부족
북한과의 차이로 인한 혼란	북한에서 경험한 타전공 교생실습과 다름	- 자기주도적 실습수행의 어려움 - 철저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
	북한 문화와 언어의 차이	- 북한에서 통용되던 청탁방법(고임)이 안 먹힘(통하지 않음) - 문서작성 시 용어가 다름 - 대상에 따른 대화 언어가 다름
기대와 다른 과업과 역할 수행	많고 힘든 과업들	- 과업 수행이 버겁게 느껴짐 - 과업의 양이 과다함 - 프로그램 진행이 긴장됨 - 중간, 종결 개별 발표가 부담됨
	기대와 다른 실습내용	- 하고 싶었던 실습 업무를 못함 - 과업 내용이 불만스러움 - 사회복지사 역할이 예상과 다름 - 부당한 업무 요청에 자존심 상함
부담되는 인간관계	클라이언트의 거부와 편견	- 거부적 태도에 대해 당황함 -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에 당황함
	동료 집단 내에서의 심리적 불편	- 자기소개 시간이 부담됨 - 타 실습생과 비교의식 느낌 - 동료가 심리적으로 불편한 것이 신경 쓰임
	기관 직원의 태도에서 오는	- 실습생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칭찬으로 타 직원과 불편함 느낌

	어려움	-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언어표현으로 상처 받음
복지적 전문역량 부족감	낮설고 버거운 문서작성	- 기관에서 쓰는 양식과 학교 양식이 다름 - 작성요령 습득과 활용이 어려움 - 문서작성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듦
	전문적 지식과 기술 부족	-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이 어려움 - 클라이언트 다루는 기술이 부족함 - 경험 부족으로 인해 위축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 클라이언트 간 갈등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 돌발상황에 당황함
불가피한 환경적 어려움	아쉬운 학교 실습 교육체제	- 실습과 수업 시기가 다름 - 교수 기관방문 없음이 아쉽고 섭섭함
	불충분한 실습 여건	- 쾌적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 충분한 수퍼비전이 부족했음
	실습생 구성으로 인한 어려움	- 4년제 대학의 타 실습생과 함께 실습하는 것이 부담됨 - 실습생이 혼자인 것이 부담됨
개인적 고충 상황	체력적인 부담	- 피곤하고 힘이 듦 - 실습과 치료를 병행함
	자녀 양육 병행의 부담	- 아이를 맡기고 와야 해 분주함

#### 1.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인한 실습 진입의 어려움

##### 1.1 익숙하지 않은 실습과정 진입에 있어서의 심리적 부담

참여자들은 실습을 준비하는 과정 중 실습에 대하여 생각하면 막막하고(참여자 1, 참여자 2), 잘 해 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으며(참여자 6), 실습을 마친 선배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 준 것에 영향을 받아 겁을 먹기도 했다(참여자 1).

처음에 우려했던 게 북한이탈주민이라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실습시간을 다 이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정말 걱정이었거든요. (중략) 근데 이거를 못하면 졸업도 못하고 중도에 제가 포기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갔는데..(참여자 6)

##### 1.2 실습지 선정에 있어 비우호적 환경

오랜 기간 탈북 과정과 제 3국에서 숨어 지낸 시간동안 몸과 마음이 상하여 신체적인 질병을 많이 경험하는 새터민들의 일반적인 상황(참여자 5)이 이들 실습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직장과의 병행(참여자 2, 참여자 6), 사이버대 학생임과 북한이탈주민임에 실습지 지원에서 거절당함(참여자 2, 참여자 3), 취업준비 때문에 방학 내 실습을 수료하고 싶은 조급함(참여자 3)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실습비(참여자 5)도 환경적

장애물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이니까 말투에서도 억양에서도 거부감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부하지? 하겠다고 하는데?’ 의욕은 충만 되서 7곳을 찾아 다녔거든요. 1월 달에 원래는 실습을 마쳐야 직장 좀 취직 좀 해볼까 해서 취직하기 전에 실습을 마치고 해야 되고, 근데 받아 안 주시는 거예요 복지관이나 요양센터 노인요양센터에서는 안 받아 주시더라고요. (참여자 3)

### 1.3 실습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학교에서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 주지만 이 교육을 받고도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은 쉽지 않았다(참여자 2). 실습을 시작한 첫날은 무얼 하는 것인지 명한 느낌이 들었고(참여자 3), 실습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이해(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4), 기관이나 대상자에 따른 적절한 옷차림 등에 대한 요령도 잘 몰라 당황스럽기도 했다(참여자 6).

여름이니까 샌들을 신고 가니까 맨발에 갔었어요. 근데 되게 예쁘장하게 생긴 어르신이 “여기에 남자들도 많은데 왜 맨발에 왔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르신들이니까 내일은 양말을 신고 와야겠구나하고 양말을 신은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반바지 입을 거를 안 좋아하시고 여름인데 민소매 입을 거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워서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참여자 6)

## 2. 북한과의 차이로 인한 혼란

### 2.1 북한에서 경험한 타 전공 교생실습과 다름

다른 전공(교육관련)이지만, 북한에서 교육기관실습 경험이 있었던 한 참여자는 실습체계가 자신이 경험했던 교생 실습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실습수행에 필요한 교재나 정보 등 자원을 구하는 여러 상황도 스스로 감내해야 했다(참여자 3).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있어 실습생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철저히 기한 내 완수해야 할 결과물(일지, 보고서, 평가서 등)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복지 실습세팅과 문화는 북한 상황과 달랐다(참여자 3).

여기 와서 실습해 보니까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여기 와보니까 자본주의다 보니까 세부적이고 북한에서는 틀에 매이면서도 좀 압박적인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여기는 자유롭다 하면서도 뭔가는 정확하게 딱 해야 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중간평가 종결평가 시간 타임도 딱 지켜야 되고, 북한에서는 실습 들어가면 애들하고 막 놀아도 돼.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노는 거 같아도 무언가는 딱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성과를. 노는 거 같아도, 시간을 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종결평가에서 더 설득력 있게 하려면 어때야 돼. 지식도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발표해야 되고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더라고요. (참여자 3)

### 2.2 북한 문화와 언어와의 차이

북한에서 잘 통하던 청탁 전략이 실습 기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참여자 3). 다양한 문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 사용하던 용어와 북한에서 사용하던 대화 용어도 실습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용어들과 차이가 있어(참여자 6) 어려웠다.

북한에서는 말하자면 ‘뺨’으로 갔어요. 북한에서는 담배를 돌렸는데 여기는 담배 안 만나봐. 북한에서는 뺨이 있어서 늘 고여야(선물을 주고 청탁을 해야) 되요. 근데 여기서는 고임이 없더라고요. (중략) 저도 북한에서 고임을 받고 자랐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제가 주기도 했고 고이기도 했고. 진짜 조금씩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실습할 때 고여야 되지 않나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관장님께 뭘 좀 인사를 드리고 밥 사드리겠다니까 안 그러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여자 3)

수퍼바이저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수퍼바이저 의견을 쓰잖아요. 저희가 실습일지는 쓰다보면 잘 쓴다고 하는데도 그 문맥을 이어갈 때 저희가 조금 어색한 게 있거든요, 여기서 쓰는 말이랑 저희가 거기서 쓰던 말이 들어가면 이렇 때는 이렇게 안 쓴다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참여자 6)

### 3. 기대와 다른 과업과 역할 수행

#### 3.1 많고 힘든 과업들

실습 과정을 통해 해내야 하는 과업들은 다양하고 힘들었다(참여자 3, 참여자 6). 그 중에는 잘 못하고 힘들어 피하고 싶은 과업도 있었다(참여자 5).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았고(참여자 1), 특별히 중간 및 종결 평가를 모든 기관 내 관리자들 앞에서 개별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것은 도전이었다(참여자 3).

새벽 한시까지 만든 거 같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 앞에서, 처음에는 좀 자연스럽게 하다가 얼어가지고...얼굴이 달아오르고 좀 말도 더듬거라미 하기도 하고 그것도 좀 경험인 거 같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에 하면 이쪽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고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여자 1)

#### 3.2 기대와 다른 실습 내용

과업의 양과 난이도와는 별개로 사회복지사로서 실습 때 하게 될 것이라 예상한 내용과 다른 과업 수행을 해야 하는 상황은 의외였다(참여자 1, 참여자 2). 특별히 배우고 싶은 영역을 다루지 않은 경우는 실망스러웠다(참여자 5, 참여자 6). 사무직일 것이라 기대한 사회복지사는 참으로 다양한 신체적인 업무도 함께 하고 있어 새로웠고(참여자 6), 사전 설명이나 OT없이 실습생에게 청소 업무를 요구하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음을 넘어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참여자 1).

저녁에 퇴근할 때는 이거 다 이렇게 청소도 하고, 화장실휴지도 이렇게 다 버리고 가야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물 그런 거도 다 버리고. 순간에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첨에는 이거 하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어르신들 거기 계시는 곳은 청소하기는 괜찮은데, 사무실 같은 데, 그 직원분들이 앉아서 사무보고 하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지네 바닥이 되고. 어르신들 있는데 주방이나 그런 데는 청소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사무실) 들어가면 내가 너무 땅바닥

이 되고, 바닥이 되고 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참여자 1)

### 4. 부담되는 인간관계

#### 4.1 클라이언트의 거부와 편견

실습 환경도 낯선 데, 클라이언트나 동료, 슈퍼바이저 외 기관 내 타 직원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5)은 순탄한 실습 과정이 버거운 이유가 되었다. 초기 관계 형성에서도 거부감이나 탈북민임에 대한 편견을 경험하기도 하였다(참여자 2).

제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니까 그 분이 좀 궁금한 게 어떻게 사는가 처음에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궁금하다보니까 이제 월급에 대해서 신랑의 월급에 대해서 둘이 한 달 월급이 얼마나 이렇게 막 따지더라고요. (중략) 너는 지금 정부에서 주는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남편수입이 많을 거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여자 2)

#### 4.2 동료 집단 내에서의 심리적 불편

함께 실습하고 있는 동료 실습생들과 첫 날 각자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은 불편함을 가중하였다(참여자 2). 다른 실습생과 비교의식이 느껴지기도 하였고(참여자 2), 슈퍼바이저의 지도 방식에 대해 본인은 미리 알고 있었지만, 다른 실습생들이 불편해 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쓰이기도 하였다(참여자 4).

어느 날 자기소개 시간이 온 거예요. 아우 근데 그거는 더 싫은 거예요.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어떡하나 했는데 (참여자 2)

처음에는 (슈퍼바이저) 말투가 조금 그렇고, 완전 그 자리에서 실습생들한테 돌직구 날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타실습생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날 본인들이 얘기를 하길, 자기네가 실습지를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하고 (참여자 4)

#### 4.3 기관 직원의 태도에서 오는 어려움

실습기관의 직원이 없는 며칠 동안 실습생이 그 직원



을 대신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해 실습지도자가 많은 칭찬을 하였는데, 이후로 그 직원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마음이 불편하였다(참여자 5). 또한, 기관 내 타 직원에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투의 심한 말을 들어 상처받기도 하였다(참여자 1).

식사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실습한지 삼일이나 사일됐는데 저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이북에서 왔다고 하니깐, 그 때 되게 상처되는,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상처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중략) 좀 무시하는 소리를 해가지고, 아 이거 속으로는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아니 크게 아닌 명목도 아니고 식사 한 번 했는데 이런 얘기하시나 하고..그래가지고 내가 미칠 거 같고 우울증이 올 거같다,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참여자 1)

## 5. 복지적 전문역량 부족감

### 5.1 낯설고 버거운 문서 작성

학교에서 제공해 준 실습일지양식과 기관에서 적절하다고 여기는 일지의 양식이 달라 혼선을 경험하기도 하였다(참여자 1). 일지 쓰는 방식이나 문장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은 물론이며(참여자 2, 참여자 3), 시간적으로도 많은 투자를 해야만 했었다(참여자 2).

내가 (세미나때 실습일지 견본을) 하루치만(휴대폰에) 찍어놓았어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알았겠는데. 세상에 이거를.. 그 세미나 종이에 보면 '일기처럼 쓰지 마세요.' 되어있는데 일지를 일기처럼 쓰지 말라던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건지, 뭘 써야할지,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참여자 2)

### 5.2 전문적 지식과 기술 부족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실무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연결됨을 인식하는 참여자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모든 상황마다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지 않은 도전이 되었다.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참여자 2, 참여자 5), 무거운 어르신을 일으켜 세우는 케어기술을 몰라 당황하고(참여자 1), 한국의 실무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음으로 인해 느껴지는 한계를 맞보기도 했다(참여자 3).

거기 또 치매분이신데, 여자 분이 신체가 너무 건강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요령 없이 힘으로 대처하니깐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어르신들 땅 짚고 일어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힘을, 온 힘을 실어서 어르신을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을 데리고 가고 하니깐 너무 힘든 거예요. (참여자 1)

### 5.3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실습상황에서 클라이언트들 간의 갑작스런 갈등이 생긴 경우 적절히 대처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긴장되었다(참여자 5, 참여자 6). 준비 되지 않은 질문을 받거나(참여자 1), 화장실에 함께 가 드렸는데 어르신이 같이 있어달라고 하는 등(참여자 6)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맞닥뜨린 상황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할머니들이 예전에 남자들한테 너무 억눌려 산 게 있어서 그런지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이 같이만 있으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때는 너무 황당한 게 저는 그 싸움이 휠체어에 앉아가게시고 지팡이 잡고 다니시니까 기운이 없으시다고 생각했는데, 붙으실 때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 때 그 싸움을 말려야하는데 그 때 처음에 그거를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어르신들도 힘이 보통이 아니신 거예요. 그 때 좀 당황했고. (참여자 6)

## 6. 불가피한 환경적 어려움

### 6.1 아쉬운 학교 실습 교육 체제

실습 OT로 진행되는 실습세미나를 마치고 바로 방학 중 실습에 투입된 실습생들의 경우, 실습을 마치고 개강 이후 진행된 온라인 실습과목 수업이 실습 전에 진행되었으면 더 많이 훈련 받고 실습에 임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였다(참여자 2). 더불어 학생 수가 많은 사이버대의 특성 상 모든 실습생의 기관에 방문을 가기 힘든 여건에 대하여 큰 아쉬움과 섭섭함이 느껴졌다(참여자 2, 참여자 3).

애기가 바닷가에서 엄마를 기다리듯이 언제쯤 교수님이 방문하실까 그걸 기다렸어요. 너무 기다려 지더라구요. 정말 사막에서 물이 귀한 것처럼. 그래서 막 다른 학생들이 실습하다가 우리 교수님 오신다고하면 아 좋겠다. 개네는 부담스러워했는데 저는 속으로 아이고 부러워, 우리 교수님은 언제오실까? (참여자 2)

### 6.2 불충분한 실습 여건

실습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쾌적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참여자 2, 참여자 6)과 기관 상황으로 인해 수퍼비전이 충분치 않음은 이해되지만 보다 충분한 수퍼비전이 아쉬웠다(참여자 6).

제가 요양병원이라 기관이라 조금 착각을 했던 거 같은 한테 너무 허술한 거예요. (중략) 강의하는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너무 협소하니까 10명이 뺑 둘러서 앉기도 힘들고, 10명이 뺑 둘러 앉았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옷도 두껍게 입고, 그런데 거기는 히터도 없고 난로하나 땀니까 추워서 옷을 벗을 수도 없어서 옹기종기 공부하다보니까 참..(참여자 2)

### 6.3 실습생 구성으로 인한 어려움

대부분 만학도이며 사이버대 학생인 참여자들의 경우 4년제 일반대학의 연령적으로도 어린 학생들과 실습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으며(참여자 2), 같은 실습 기관에서 같은 학교 실습생이 없는 것도 아쉬웠다(참여자 1). 실습생이 혼자인 경우는 함께 할 동료가 없음이 허전하고 기댈 곳 없어 외로웠다(참여자 1).

곤란한 점은 어떤 분들은 두 명씩 세 명씩 이렇게 실습하면 서로 마음이 맞고 또 서로 의지되고 그러면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혼자니까, 처음부터 혼자니까 그게 좀 안 됐더라고요. (참여자 1)

## 7. 개인적 고충상황

### 7.1 체력적인 부담

기본적인 체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참여자들은 실습과정에서 많이 피곤하였고(참여자 5), 무더위

속에서 실습을 수행함으로 인해 부가적인 체력 소모가 있었다(참여자 6). 실습이 없는 토요일을 이용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 가면서 실습을 수행하기도 하였다(참여자 1).

몸은 힘들었어요. 특히나 여름에 하니깐 몸은 힘들었는데 오늘은 이런 일이 생기고 내일은 또 이런 일이 생기고 하니깐 매일 매일 그거를 보면서. 그리고 지루하지 않았던 게 거의 매일 프로그램 진행이 있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몸은 힘든데. (참여자 6)

### 7.2 자녀 양육 병행의 부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이른 아침 실습기관에 출근하는 것만도 벅찬데,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부랴부랴 출근하느라 매일 아침은 분주하기 이를 데 없었다(참여자 1, 참여자 6).

실습하는 동안에는 애를 빨리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 데 이게 제가 한 8시 그때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6시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준비를 다 먼저 해가지고 애를 깨워서 밥 먹이고 그래가지고, 유모차에 태워가지고는 그냥 뛰어서리 보내고. (참여자 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이 사회복지실습에서 경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실습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실습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실습을 마친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 북한이탈주민 재학생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근거이론의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에 근거한 개방코딩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이 경험하는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어려움은 49개의 개념, 18개의 하위범주, 7개의 범주로 최종 분석되었다. 범주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한 실습 진입의 어려움', '북한과의 차이로 인한 혼란', '기대와 다른 과업과 수행역할', '부담되는 인간관

계, '복지적 전문역량 부족감', '불가피한 환경적 어려움', '개인적 고충상황'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내용 및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첫째, 실습 준비 과정이나 초기의 근심이나 막연함, 자신감 부족[9-11], 직장병행의 부담[14], 사이버대학생에 대한 실습 거부[19], 실습 전반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부족으로 시작함[14] 등 실습 진입의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스스로 자율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17] 실습 과정이나 문서 작성 시의 용어 다름, 언어의 차이[3] 등 북한과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과업이 많고 힘들거나[22] 프로그램 진행이 긴장됨[21], 역할이나 과업이 기대와 달라 실망 혹은 불만스러움[12] 등 기대와 다른 역할 수행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클라이언트의 거부적 초기 반응에서 오는 어려움[21][22], 동료에 대한 비교와 동료의 어려움에 대한 불편함 느낌, 기관 직원의 태도에서 오는 어려움[12] 등의 인간관계의 불편한 경험[6]이 있었다. 다섯째, 문서 작성 등 기록이 낯설고 어려움 및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필요[21], 전문적 지식과 기술 부족[22],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이나 잘 응대하는 기술 부족[21] 등 복지적 전문역량 부족감을 경험하였다. 여섯째, 불가피한 환경적 어려움으로 방학 중 실습의 경우 실습과목 수강에 있어 시기적 어려움[13], 쾌적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21], 체계적인 슈퍼비전의 미흡[19][23], 4년제 대학생과의 실습생 구성에서 오는 어려움[12] 등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적 고충상황은 실습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감[22]과 자녀 양육부담[8]으로 인한 실습 병행의 분주함이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결과들로 첫째, 주변의 북한이탈주민 실습 선배들에게 실습이 힘들다고 들어서 겁이 많이 남, 본래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서 실습을 시작함, 북한이탈주민이라 실습지 지원을 거부당함, 취업준비 때문에 실습을 빨리 마치고 싶은 조급함, 실습비 부담 등 실습 진입 전의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이는 성인학습자시기에 병행해야 하는 다양한 과업들과, 오랜 기간 험난한 탈북과정을 통해 악화된 건강

상태[31],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 실습생에 대한 실습기관의 인식 부족이 사이버대학생에 대한 실습수용에 있어서의 비우호성에 부가하여 어려움을 더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북한과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으로 자율과 창의성을 요구하면서도 과업과 성과에 있어서는 철저한 기간 준수와 일정 수준 도달 필요성 등 철저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남한의 실습시스템, 실습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때 북한에서 통용되던 청탁방법(북한용어: 고임)을 사용해 보려 했으나, 효과적이지 않음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인 북한 사회와 교육 체계 및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과 맥을 같이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거나 미안해함을 보인 특징[6][8]과는 대조적이다. 셋째, 과업이나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중간 및 종결발표를 동료와 슈퍼바이저, 기관장 앞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쓰레기통 비우기나 청소 등을 사전 공지 없이 실습생에게 수행 요청 한 것에 대한 불쾌감 등이 드러났다. 넷째,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클라이언트가 보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에 당황함, 동료들 앞에서 자기소개 시간이 부담됨,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무시하는 언어 표현으로 상처받음이 있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거나 출신을 숨기는 등[31]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일반적인 행동양상과 연결성이 있다. 하지만, 실습이라는 특수 환경 내 대인관계상황에서 밝혀진 새로운 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복지적 전문역량 부족감 영역에서 학교 실습양식과 기관의 양식 자체가 달라서 어려움을 경험함,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어 위축됨이 발견되었다. 이는 학교 당국의 실습교수나 실습조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경제활동이나 육아 등 학업과 병행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실습 전 다양한 자원봉사나 인턴십, 직장 체험 등의 사회복지현장 노출 기회가 부족하였을 것임이 그 배경으로 유추된다. 여섯째, 환경적 어려움 측면에서는 실습담당교수의 기관방문이 없음이 아쉽고 섬섬함미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 수로 인한 사이버대 실습교수의 기관방문의 한계성과 함께 다양한 생활과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한국 사회

에 적응 중인 북한이탈주민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더욱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고충상황 측면에서는 실습수행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적 피곤감과 달리,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습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발견이다. 주말에 병원치료를 하면서 주중 실습을 수행해야 했던 상황은 북한이탈주민 실습생들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실습체계 안팎을 아우른 통합적, 즉 다체계적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실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학교, 실습기관, 실습생,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실습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실습지도교수와 실습조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실습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민감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별도의 실습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습지침서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을 위한 실습지침서에는 북한이탈주민 실습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바람직한 대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접촉하는 방법, 면접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까지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 실습생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실습지도자의 의견을 실습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실습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사회복지기관으로 하여금 사명감을 갖고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실습지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실습지를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실습지도교수의 기관방문의 중요성이다. 사이버대학의 경우 많은 학생 수로 인해 모든 실습생에 대한 기관방문에는 한계가 있으나, 인맥 등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하여 위축된 북한이탈주민 실습생에게 지도교수의 방문은 ‘애기가 바닷가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심정과도 같다고 표현한 한 연구참여자의 말처럼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북한이탈주민 실습생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반드시 기관방문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은 정보가 부족할 뿐더러 정보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실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선배들이나 동료들을 연결해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수업체계의 특성 상 방학 중 실습생의 경우 실습 오리엔테이션만 참석하고 실습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개강 후 수강하게 되는 온라인수업을 미리 수강할 수 있도록 실습교과목 수강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실습기관 차원에서, 직원들은 물론이고 실습대상자인 클라이언트에게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 받고 있고, 이는 남한 사회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2]. 일반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별적 상황이 하물며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실습현장에서까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일반직원들은 북한이탈주민 실습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일반직원에 대한 다문화 역량 강화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업무 요청 등으로 자존심이 상했다는 실습생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많은 경우 남한 입국 후 신분하향에서 오는 좌절감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므로[17] 실습생을 지도하는 기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사전설명과 지지적 수퍼비전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실습생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실습준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습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에 반드시 참여하고, 실습 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또한 실습과정에서 체력 면에서 상당한 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감안하여 치료까지

병행해야 할 정도로 건강상의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실습 기관 선정 및 실습일정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발음과 억양, 어휘사용 등, 언어 문제로 인한 차별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 표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실습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언어문제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 및 부정적 표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북한이탈주민 성인학습자들은 생계와 학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에는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언어교육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이 확산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제공되고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교육기관과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의 교육경험 중에서도 최초로 사회복지실습이라는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파악한 연구로, 본 연구결과는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당국과 사회복지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실습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실습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실습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궁극적으로 이들의 취업을 돕고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통일시

대를 준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남한사회 정착과 통합에 기여할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마중물이 되어 미래 통일시대의 사회복지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역량기반을 갖춘 북한이탈주민 출신 사회복지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비밀보장이나 사생활 보호 등으로 인해 연구대상이 특정 사이버대학교의 여성 북한이탈주민 실습생 6명으로 한정되어 전체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실습생의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실습경험의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에 연구 참여자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후속연구를 통해 실습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 성장, 실습지도자의 실습지도경험 등을 포함하는 발전적 시도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의 중요한 패러다임인 강점관점에 기반하여 이들의 차별화된 긍정적 역량탐색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http://www.unikorea.go.kr>
- [2] 김영일, 전혜연, 강선주, 기지혜, 권지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6권, 제4호, pp.127-161, 2014.
- [3] 이문숙,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on-line 대학교에서의 교육경험과 그들의 필요,” 한국콘텐츠학회 2014 추계종합학술대회 자료집, pp.81-82, 2014.
- [4] 박은미, 박준성, 정태연, “새터민 대학생의 적응에 스트레스 및 중재변인이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 연구, 제17권, 제3호, pp.285-293, 2009.
- [5] 이혜경,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체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6] 조영아, 전우택,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Vol.16, No.1, pp.167-186, 2004.
- [7] 신희정, 박선아, “새터민 대학생의 체함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Vol.3, No.1, pp.101-130, 2009.
- [8] 김현아, “새터민의 남한 사이버 교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Vol.11, No.2, pp.57-92, 2010.
- [9] 박미정, *지역사회복지관의 실습지도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10] 주영애,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의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대학 실습생을 중심으로*, 상지대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1] 김승용, 박은주, “사회복지현장실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Vol.17, pp.1-26, 2012.
- [12] 배진형, 김희수, 안정선, “사회복지실습에서 경험하는 실습생의 어려움과 대처,”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48, pp.1-43, 2014.
- [13] 김진숙, 구혜영,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모델 개발: 사이버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Vol.5, No.1, 2009.
- [14] 김주현, 전진호, “원격대학의 사회복지현장실습 3P-Plus모델에 관한 연구-사회복지현장의 실습 슈퍼바이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32, pp.1-30, 2010.
- [15] 김선영, 서원경, “보육실습현장에서 실습생이 들려주는 스트레스와 대처,” 아동학회지, 제31호, pp.135-150, 2010.
- [16] 한주빈, 양숙미, 오봉욱,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진로확신정도에 지도교수가 미치는 영향: 실습성과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pp.183-205, 2014.
- [17] 김현아, “북한이탈 성인학습자의 진로탐색 이행 과정 연구: 사이버대학 경험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Vol.26, No.2, pp.139-162, 2013.
- [18] 엄미선, 김선아, 꺾지영, “원격대학 사회복지 전공 학생의 직업실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실습 지도요인들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사회, 제5권, 제2호, pp.161-182, 2009.
- [19] 최은희, “사이버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성과 및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Vol.11, No.12, pp.475-485, 2011.
- [20] 김영호, 오정옥, 이은경,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 양서원, 2004.
- [21] 김희수, 안정선, 배진형, “사회복지실습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Vol.13, No.5, pp.740-752, 2013.
- [22] 조혜영,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3] 심경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생의 스트레스 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Vol.13, No.5, pp.311-321, 2013.
- [24] S. J. Zunz and K. R. Oil, “A preliminary look at international students in MSW field placements at nonurban U.S. campuse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Vol.45, No.1, pp.131-137, 2009.
- [25] 최선희,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기초 이해에서 실제 조사까지*, 공동체, 2012.
- [26] 유태균, *사회복지질적연구방법론*, 나남, 2001.
- [27] A. Jonson, “Increasing internationalization in social work programs,”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47, pp.7-23, 2004.
- [28] 최옥채, *사회복지사를 위한 질적 연구*, 신정, 2008.
- [29] P. N. Stern,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gresses,” In *Grounded Theory*, edited by B. G. Glaser, CA: Sociology Press, pp.29-40, 1995.
- [30] A. C. Strauss and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 CA: Sage Publication, Inc., 1990.
- [31] 박영희, 정순돌, 배진형, “지역사회복지관의 북한

이탈주민가족 사례관리모델 구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7권, 제4호, pp.87-113, 2012.

저 자 소 개

배진형(Jin-Hyung Bae)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7년 12월 : Loyola Univ. Chicago, School of Social Work

(Ph. D.)

- 2009년 3월 ~ 2016년 현재 :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학교사회복지, 다문화 및 국제사회복지, 수업설계, 사회복지현장실습, 질적 연구

박미현(Mee-Hyun Park)

정회원



- 198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6년 3월 ~ 2016년 현재 :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노인복지, 고용복지